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조정석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진배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회장은 지난 1월 21일 오후 3시부터 중구 썬림동 소재 인쇄정보센터 강당에서新春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4단체장은 앞으로 단체간 철저한 공조를 통해 업계의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공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덤핑방지를 위해 인쇄연합회에 제값받기운동본부'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프린팅코리아, 인쇄계, 인쇄문화, 인쇄산업신문, PT, 인쇄저널 기자가 참석했다. 다음은 사안 별 단체장들의 발언 요약이다.

“단체간 공조로 업계 현안해결에 최선”

덤핑방지 위한 제값받기운동본부 설치 예정

현안 진단 및 대책

이충원 회장

한솔PNS의 대영인쇄 인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여러 활동을 전개했지만 인쇄업이 중소기업고유업종이 아니어서 결국 막지 못했다. 그러나 2009년 11월 4일 중기청의 조정으로 합의를 했다. 조정 내용의 핵심은 3년간 시설확장과 매출증대를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기간 내에 문제가 있을 경우 3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곧 TF를 구성할 것이다. 이 결과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로 연합회를 비롯한 지방조합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회 차원에서 지방조합의 수익원이 증대되도록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조합추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조합별로 산업단지 조성이나 조합원의 행정업무 대행 등을 통해 수익원을 발굴해야 한다. 연합회에서 기자재를 공동구매하고 있는데 이를 많이 이용해 주면 좋겠다.



홍우동 회장

인쇄업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켜지지 않는 인쇄가격과 일감부족이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텅텅행위가 심각하다. 시설과잉이 그 원인이고 인쇄인들의 의식도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중구 지역의 인쇄단지 조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단체장들이 그 어느 때보다 자주 만나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조정석 이사장

우리 업계의 현안으로 제값받기 운동과 중구지역의 인쇄마을 지정, B2B인터넷쇼핑몰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연합회에 '제값받기 운동본부'를 설치하여 모든 인쇄인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해 나간다면 제값 받는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리라 생각한다. 이와 함께 중구지역 내의 인쇄마을 지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1만 명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단체별 주요사업

홍우동 회장

지난해에 '인쇄진흥 10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했다. 올해부터 이 진흥방안이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이 배정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쇄진흥 10개년 계획은 정부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면 10년 내에 세계 7위의 인쇄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안이 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협회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그리고 인쇄의 위상제고를 위한 국내외에 전시사업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며, 세계인쇄문화박물관 설립, 인쇄대백과사전 발간, 인쇄금고 설치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충원 회장

조정석 이사장



이충원 회장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을 인상하는데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그리고 수출진흥협의회를 활성화 해 수출증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조합원들이 협의회에 많이 가입하면 좋겠다. 그리고 인쇄물 제값받기 운동본부를 설치해 제값받기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조정석 이사장

조합의 역점사업인 B2B인터넷쇼핑몰 사업은 원부자재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조합원들의 경쟁력 강화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을 부탁드린다.

김진배 회장 : 4단체장으로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돼 기쁘다. 지난해 서밋을 했는데 훌륭한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그리고 지경부와 협의하여 인쇄표준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불황 극복 방안

홍우동 회장

협회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선 현행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인쇄업계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고급인력을 유입해 전자업계 등에 빼앗긴 우리의 일(인쇄물)을 되찾아 와야 하며 새로운 일을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철저한 산학협동이 필요하다. 특히 기자재의 개발과 인쇄물 수출증대는 불황극복의 열쇠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김진배 회장

인쇄업체 중 소위 대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주가격 등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또한 기자재공급 업체들이 상생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기계를 팔고 난 후 서비스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쇄업체들도 자체적으로 기획·디자인 파트를 두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충원 회장

인쇄업은 10인 이하 기업이 95%에 육박한다. 그야말로 영세업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치산업적 특성으로 첨단·고속 인쇄시설이 꾸준히 증가해 과당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업계 자체나 인위적 구조조정도 어렵다. 따라서 수출진흥을 통한 시장 확대가 절실하다. 정부와 각 단체가 공동 노력해야 한다. 연합회에서 아시아인쇄기술포럼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이유도 시장 확대를 위한 포석이다.

조정석 이사장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기불황은 IMF 때와는 달리 세계경기 불황과 내수침체 등의 악재가 겹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쇄인들 스스로 제 살을 깎는 식의 수주경쟁으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제값받기 운동에 모든 인쇄인들이

참여해야 한다. 오늘날의 세계 인쇄시장 트렌드는 한마디로 '디지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는 CTP, Mac OS-X, 크로스 미디어 출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로 사상 처음 시설도입 자금으로 5억 원을 배정받았다. 서울인쇄센터와 공조하여 5억 원 상당의 CTP 장비를 구축하여 인쇄인이면 누구나 장비를 활용하여 인쇄품질향상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현장인들의 재교육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불황 타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방침이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동경국제도서전과 멕시코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 등 해외 전시회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많은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는데, 앞으로도 새로운 틈새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여 수출 경쟁력 제고에 힘을 쓸 것이다.

기타 발언

홍우동 회장 지난해에 협회에서 친환경인쇄를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다. 친환경인쇄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쇄인들의 인식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친환경인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절실하다. 그리고 단체에 불만은 가질 수 있지만 건설적 대안도 제시해 주면 좋겠다. 특히 단체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업계 발전의 원동력이라 믿는다.

이충원 회장 올해는 4단체의 철저한 공조로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다. 올해가 인쇄업이 재도약하는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진배 회장 화합과 용서, 단결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조정석 이사장 저 역시 단체장이기 전에 인쇄인의 한 사람으로서 인쇄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협력과 상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조달청가격이 없어질 경우를 대비한 '표준인쇄가격'이 하루빨리 마련되고 '인쇄물 제값받기'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인쇄종주국으로서 명예회복과 세계시장에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서체문체와 함께 품질인증제도가 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행되어야 하고, 오는 9월에 개최되는 제5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우수 인쇄물들을 많이 출품해 주면 좋겠다. ☺

정리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



홍우동 회장

김진배 회장

